

“위안부 합의 무효” 예술인들 나섰다

이성웅 작가 미디어 아트 접목 6m 대형 소녀상 제작

3·1절 日대사관 등 전국 순회...내일 광주 시민문화제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모습을 보인 건 지난 2011년 12월 14일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 주 수요일마다 대사관 앞에서 열었던 ‘수요집회’ 1000회를 맞는 날이었다. 치마 저고리를 입은 맨발의 단발머리 소녀는 이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다. 시민들은 비가 오면 소녀에게 우의를 입혀주고, 날이 추워지면 목도리를 둘러쳤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 후 위안부 할머니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굴욕적 합의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지역 예술가들이 힘을 모았다.

미디어 그룹 ‘스톤렌지’ 이성웅 작가는 6m에 이르는 대형 소녀상을 만들었다. 김운성·김서경 부부 작가가 제작한 실제 평화의 소녀상 크기는 1m 30cm. 이씨는 김씨 부부의 허락을 받아 하얀 천을 소재로 대형 풍선 아트 조형물을 완성했다. 디테일을 살리기 어려운 재료의 특성을 감안, 원작의 특성을

살리되 나비가 날고, 구름이 흘러가는 다양한 영상을 만날 수 있는 미디어 아트를 접목해 재창조했다. 배경 음악은 경상도에서 활동하는 아리랑심포니가 무료로 음원을 지원했다.

‘소녀상’은 오는 3일(오후 7시 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 열리는 ‘위안부 굴욕 합의 전면 무효화를 촉구하는 시민문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다. 이후 전국 곳곳을 순회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번 합의에 대한 문제점도 알린다.

우선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지 않은 지역도 방문, 공원 등 많은 이들이 모이는 공간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다. 또 삼일절인 3월 1일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 대형 소녀상을 세우며 김씨 부부가 외국에서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한 행사를 진행할 때도 참여할 예정이다.

“살아가는 데 다들 바쁘지만 짧은 순간이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고 이번 합의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품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눈에 확 띄는 대형 작품을 만든 건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작업이기도 했지만 ‘평화의 소녀상’이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도했습니다. 예술가들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대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광주에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사라진듯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시민문화제에는 지역 예술인들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적극 동참했다. ‘할매 우린 다 기억하고 있지라!’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문화제에는 타악그룹 ‘얼쭈’, 바리톤 이호민, 밴드 ‘조아브로’, 국악그룹 ‘희희라라’ 등이 참여한다. 특히 가수 김원중과 그룹 ‘프롤로그’는 위안부 할머니를 주제로 한 창작곡 ‘꽃을 심으리 그대 가슴에’, ‘소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는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가 맡는다.

또 오후 5시부터는 평화의 소녀상 조형물을 배경으로 맨발로 의자에 앉아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는 체험행사가 진행되며, 전기도 마련된다.

본 행사와 공연 실황은 오마이티브 등 인터넷 TV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문화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가 함께한다. /김미은기자 mekim@

오늘 '美 대선 첫 관문' 아이오와주 당원대회

힐러리 vs 샌더스 3%P差...트럼프 vs 크루즈 5%P差

민주·공화 주자 초접전 양상

미국 대선 경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 주(州) 코커스(당원대회)가 31일(현지시간)로 꼭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 공화 양당 주자들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양당 주자들 모두 하나같이 자신들의 첫 승리를 장담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특히 한때 브로망스(bromance·이성 애자인 남성 간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용어) 사이로 불릴 정도로 단짝이었던 공화당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와 2위를 달리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설전이 가장 눈에 띈다.

크루즈 의원이 막판 싸움을 건 모양새다. 크루즈 의원은 전날 공개한 2분56초 분량의 새 광고에서 트럼프의 과거 발언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가 민주당 유력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친하고 또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광고에는 “클린턴 전 장관 부부를 오랫동안 알아왔고 그들을 매우 좋아한다. 클린턴 전 장관은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뒤이어 클린턴 전 장관이 “내가 그의 결혼식에 갔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크루즈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클린턴 전 장관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나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크루즈)는 거짓말쟁이다. (상원의원 선거 출마 때 골드만삭스에서)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아주 좋은 조건의 저금리로 돈을 빌리고도 이를 회계보고서에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아무도 크루즈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며 심지어 그는 동료 상원의원의 지지조차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크루즈 의원은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내 대륙 기록을 문제 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나는 돈을 빌렸고 갚았다”면서 “그런데 트럼프는 과거 (카지노 사업 등과 관련해) 4번이나 파산을 선언하지 않았느냐. 트럼프 회계보고서를 보면 지금도 최소 4억8000만 달러(약 578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반격했다.

두 사람의 이 같은 난타전은 초접전 양상의 판세와 직결돼 있다. 전날 발표된 디모인 레지스터-블룸버그의 마지막 공동 여론조사(26~29일·민주·공화당 코커스 참여자 각 602명) 결과 트럼프는 28%의 지지율을 기록해 23%를 얻은 크루즈 의원에 5% 포인트 앞섰다.



2016년 2월1일	아이오와 코커스
2월9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3월1일	슈퍼 화요일, 텍사스 등 10개주 이상 경선
4월9일	뉴욕 프라이머리
6월7일	공화당 경선 완료 (캘리포니아 등 4개주)
6월14일	민주당 경선 완료 (워싱턴)
7월18~21일	공화당 전당대회 (오하이오 주 콜리넨랜드)
7월 25~28일	민주당 전당대회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9월26일, 10월9~19일	대선 후보 TV토론
11월8일	대통령 선거
12월19일	대통령선거인단 투표
2017년 1월20일	45대 대통령 취임

하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내 접전인데다 크루즈 의원이 조직력이 튼튼한데다 양당 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아이오와 주 99개 카운티를 모두 돌며 밀바다 표심을 훑은 터라 승부를 좀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클린턴 전 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자신의 약점을 방어하면서 막판 표심을 하고 있다. 디모인 레지스터-블룸버그의 마지막 조사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은 각각 45%, 42%로 나왔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 이메일 스팸에 대해 “내가 (국무장관 재직시) 주고받은 이메일에 기밀로 분류된 정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샌더스 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워싱턴포스트(WP)가 연일 자신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클린턴 전 장관 편을 드는 것과 관련, “월가가 그다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WP를 포함해 주요 기성 미디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아이오와 코커스 승리를 자신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각각 카운슬 블러프즈, 워털루에서 유세를 벌인 뒤 저녁에 주도인 디모인을 찾아 막판 유세 대결을 펼친다. /연합뉴스

법정스님 수행하던 길... 송광사 불일암 옛길 복원

법정 스님이 생전에 순천시 송광사 불일암에서 수행하며 걸었던 옛길이 복원된다.

순천시는 송광사 탐전에서 불일암까지 1.5km 구간에 ‘법정스님 수행 무소유 옛길’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순천시는 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옛길의 좁은 폭을 넓히고 노면을 걷기 좋게 정리하는 등 오는 6월 말까지 옛길 복원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정스님은 2010년 3월 11일 돌아가시기 전까지 20여년 동안 불일암에서 수행과 저술활동을 했다.

순천시는 이번 옛길 복원 공사가 완료되면 조계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이야기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산은 전국 100대 명산으로 산세가 부드럽고 다양한 탐방로가 잘 정비돼 있어 숲과 계곡에 연간 40만여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조계산도립공원 탐방객을 위해 쉼터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조계산과 순천만국가정원을 연계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영암호에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1600억 들어 연간 1만6천가구 공급...전남개발공사 “사업 참여”

영암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다.

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달 중 ‘영암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공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영암호 28만평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80MW 발전 용량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달 중 영암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임대업체 선정 공모를 할 것”이라며 “유케이테크노시스템과 함께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가격, 기술, 업체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는 총 16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와 관련, 전남개발공사는 자본참여 형식으로 24억원을 투자하면 20년 동안 운용을 전제로 227억원의 배당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여업체가 몇 년간 운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80MW 발전 용량은 연간 1억18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가정용 5kw 기준으로 총 1만6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전KDN 흑산도 에너지 자립섬 추진

한전KDN(주)이 신안 흑산도를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전KPS(주) 등 다른 전력기업들도 전남 섬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1일 오후 한전 KDN(주) 회의실에서 이날 전남지사, 임수경 한전 KDN(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한전 KDN(주)는 2020년 흑산공항이 들어서는 흑산도를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하고, 전남도와 함께 스마트 에너지 신산업육성한다. 또 에너지 자립섬 제고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등

를 추진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전략적 유치에도 나선다. 한전 KDN(주)만이 아니라 한전 KPS(주)도 흑산도보다 작은 규모의 섬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빛가람혁신도시 내 입주한 전력기업들이 전남도의 섬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한전 KDN(주)는 한전 자회사로, 임직원은 1797명, 지난 2014년 자본금 및 매출액이 각각 640억원, 4589억원이다. 전력 생산, 거래, 수송, 판매 등 전력 IT서비스, 전력 생산 제어시스템 등이 주요 업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고용직 결혼정보회사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편사, 감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체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코넷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구 7면동 70m 최남향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면접준비실전과정

면접 준비일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찰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트레이닝교육원 | 전라·문라·서남·지세한·안내·문물·우송하여 드립니다.